

KIA 열세만회, 응답하라! 외인 삼총사



이번주 NC·롯데전 원정·주말 SK와 홈경기
6위 삼성에 반 경기차·5위 LG에 2.5경기 차
NC·롯데에 상대적 열세...연승해야 가을야구
'부진' 헥터·버나디나·팻딘, 분위기 반전 필요

KIA 타이거즈가 4연승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열세 만회'를 위한 길을 떠난다. 지난 주말 '한 방' 페레이드로 3연승을 찍으며 6위에 올랐던 KIA는 9일 헥터가 한승택의 만루홈런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7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6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반 경기 차, 5위 LG 트윈스와는 2.5경기 차다.

5위를 올려보려는 KIA는 이번 주 마산·사직 원정에 이어 안방에서 SK 와이번스와 홈경기를 치른다.

'열세 만회'라는 중요한 미션이 걸린 원정 4연전이다. KIA는 올 시즌 원정길에서 20승을 챙기는 데 그쳤다. 반면에 35패를 기록하면서 원정경기 승률은 0.364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이번 원정길에서 만나는 두 팀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밀린다.

마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하위 NC 다이노스에 5승 6패로 뒤져있고, 사직에서 대결하는 롯데 자이언츠에도 4승 7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싸움의 중요한 길목에서 발목을 잡았던 장소와 팀이기도 하다.

KIA는 지난 7월 10일 시작된 NC와의 원정경기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하고 돌아왔다. 5위와 1.5게임 차 6위로 마산을 찾았던 KIA는 2회 4-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는 등 스윙패 속 5연패로 울스타브레이크를 맞았다.

아시아게임 휴식기에 앞서 치른 마지막 경기의 장소와 상대 역시 사직, 롯데였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5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KIA는 8위로 내려앉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휴식기를 보내야 했다.

앞선 패배의 기억을 지우고 열세 만회에 나서야

■ KBO 중간순위 (10일 현재)

| 순위 | 팀명 | 승 | 무 | 패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두산 | 77 | 0 | 42 | 0.647 | 0.0 | 1패 |
| 2 | SK | 65 | 1 | 52 | 0.556 | 11.0 | 1승 |
| 3 | 한화 | 65 | 0 | 55 | 0.542 | 12.5 | 3패 |
| 4 | 넥센 | 63 | 0 | 61 | 0.508 | 16.5 | 1승 |
| 5 | LG | 60 | 1 | 61 | 0.496 | 18.0 | 2승 |
| 6 | 삼성 | 57 | 3 | 62 | 0.479 | 20.0 | 1승 |
| 7 | KIA | 55 | 0 | 61 | 0.474 | 20.5 | 1패 |
| 8 | 롯데 | 52 | 2 | 62 | 0.456 | 22.5 | 3패 |
| 9 | KT | 50 | 2 | 67 | 0.427 | 26.0 | 1패 |
| 10 | NC | 50 | 1 | 71 | 0.413 | 28.0 | 3승 |

하는 원정 4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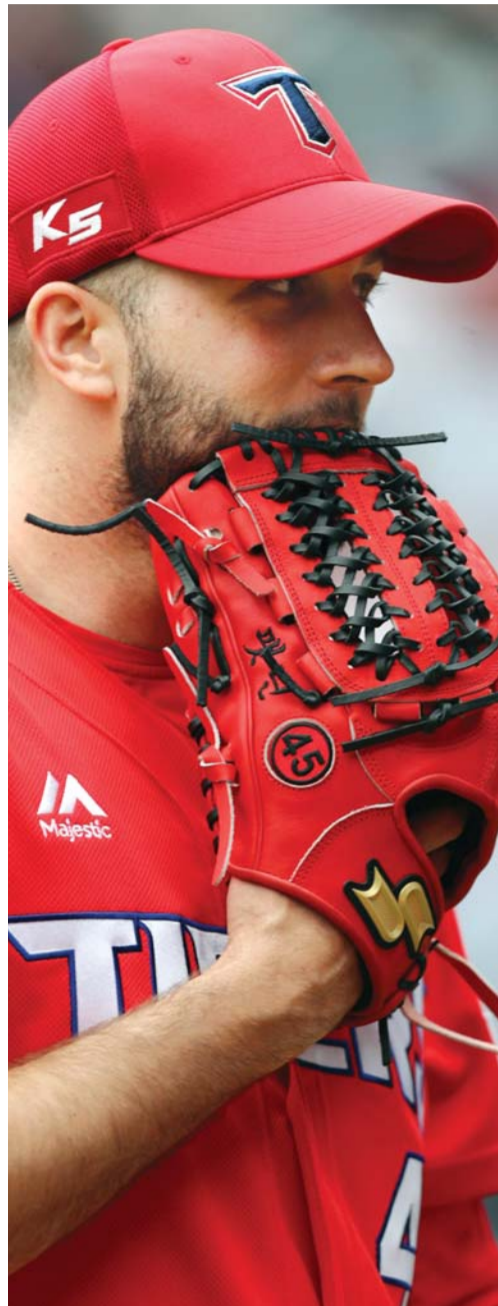
주말에는 SK를 상대로 화려전에 나선다. 올 시즌 KIA는 2위 SK에 7승 4패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흠린 군단'을 상대로 오히려 파워 싸움에서 앞선 모습이다. 올 시즌 두 팀은 18개와 25개의 홈런을 주고받았는데, KIA가 '팀홈런 1위' SK보다 7개의 홈런을 더 넣었다. SK전 팀타율은 0.316으로 3할을 넘는다.

새로운 한 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외국인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11일 NC전 선발로 나서는 팻딘은 지난 5일 두산전에서 5이닝 1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7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매 이닝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발 자리를 놓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버나디나도 휴식기 이후 치른 6경기에서 21타수 3안타, 타율 0.143으로 부진하다. 4개의 볼넷을 골라내기는 했지만 삼진으로 물러난 타석도 8타석에 이르는 등 정교함이 떨어졌다.



팻딘

KBO리그 외국인 선수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헥터는 명성에 한참 부족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삼성전에서 타자들이 2회 4점을 안겨주



버나디나

자마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직 10승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승 멤버'로 대우는 받았지만 순위 싸움에 역



헥터

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 외국인 선수의 성적에 이번 주 KIA의 순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스피드·미래 택했다

KBO 신인 2차 지명 투수 홍원빈 등 유망주 10명 선택

KIA 타이거즈가 '스피드'와 '미래'를 선택했다. KIA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BO 신인 2차 지명회'에서 덕수고 투수 홍원빈 등 10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1라운드에서 호명된 홍원빈(우투우타)은 195cm, 103kg의 뛰어난 신체 조건을 지녔으며,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슬라이더와 포크볼 등의 변화구를 구사한다.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홍원빈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평가받는다.

2라운드에서는 투수 장지수(성남고)를 지명했다. 장지수는 179cm, 83kg의 다부진 체격의 우완 투수로 최고 150km 초반대의 빠른 공을 던지며,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등 운동 신경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투수 이태규(수원 장안

고)는 188cm, 73kg로 140km 중·후반의 직구를 던진다. 변화구 구사 능력도 뛰어나며 구속 발전 가능성도 높은 유망주다.

진흥고 출신의 원광대 투수 양승철은 4라운드에서 선택을 받았으며, 우투우타로 193cm, 108kg의 탁월한 신체 조건을 자랑한다. 150km 초반의 빠른 직구를 구사하며, 군필 선수로 재구력만 보완되면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A는 이어진 라운드에서 외야수 오선우(배명고-인하대), 외야수 박수용(안동 영문고), 외야수 김민수(경남고), 8라운드 내야수 김창용(경북고-연세대), 투수 이호현(경기고), 투수 나용기(북일고-동강대) 등 총 10명을 지명했다.

오선우는 중장거리형 타자로 컨택 능력이 탁월하며 대학 내 최상위 공격력을 자랑한다. 외야수



홍원빈

박수용은 공수주를 두루 갖췄으며 장타력이 우수한 선수로 꼽힌다.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하는 김민수는 주력과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한다.

이호현은 공의 움직임이 좋고 제구력이 탁월해 경기운영 능력이 좋다는 평가다. 나용기는 195cm 큰키에 서 내리꽂는 직구가 위력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이날 지명을 마친 김지훈 스카우트 팀장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위주의 지명에 집중했고 신체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우선 고려했다. 즉시 전력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명이었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김창평 등 지역선수 11명 '프로 꿈'

광주일고 '캡틴' 김창평 등 11명의 지역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뤘다.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KBO 신인드래프트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가 덕수고 투수 홍원빈 등 10명의 선수를 선발한 가운데 지역 출신 선수들도 잇달아 이름이 호명됐다.

고교 야수 대어로 평가받았던 광주일고 유격수 김창평이 가장 먼저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뤘다. 김창평은 지난해 성적 역으로 진행된 이번 드래프트에서 6번째로 지명권을 행사한 SK의 1라운드 지명 선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어 타격·주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광주일고 내야수 유장혁이 2라운드에서 한화 선택을 받았다. 광주 동성고의 4번 타자 이명기는 넥센의 5라운드 선수로 지명됐다. 또 광주일고 포수 박준형은 다음 라운드에서 넥센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명기와 한술밥을 먹게 됐다.

진흥고에서도 두 명의 투수가 프로 무대에 진출



김창평

은 양경민(순천 효천고)이 그의 친동생이다. 지역 대학팀인 송원대와 동강대에서 프로 무대에 도전했던 외야수 채현우와 투수 나용기는 각각 SK와 KIA 선수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복귀 첫 원정 '홈런 경계령'

내일 신시내티전 선발...보트·스콧에 피홈런 전력

'괴물투수'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5승에 재도전한다.

미국 언론은 류현진이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드와 방문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부상 복귀 이후 6경기 만에 첫 방문 경기 출격이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11번의 선발 등판에서 4승 2패 58.1이닝 평균자책점 2.1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인 뉴욕 메츠전에서는 6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고전 끝에 패전을 기록했는데, 경기 후 자

책점이 3점에서 1점으로 수직되는 행운도 따랐다.

류현진의 신시내티전 통산 성적은 6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4.30이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는 2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4.91이었다.

신시내티 타자 가운데 경제대상 1순위는 조이 보토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가운데 한 명인 보토는 이번 시즌 타율 0.283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출루율 0.421은 내셔널리그 1위다.

보토는 류현진을 상대로 타율 0.364(11타수 4안타), 2루타 2개, 홈런 1개, 3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뽐냈다.



스콧 세블러는 류현진과 5차례 만나 안타 2개를 뽑았고, 그중 1개는 솔로 홈런이었다.

한편, 다저스는 신시내티와 3연전 첫날인 11일에는 왼손 투수 알렉스 우드를 선발로 낸다.

13일 등판 예정이었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는 하루 뒤인 1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서 나선다.

/연합뉴스

야구 전설들 훈훈한 샷대결

박찬호·이승엽, 20일부터 KPGA 코리아투어 프로암 출전

'코리아 특급' 박찬호와 '라이어 킹' 이승엽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정규대회에서 샷대결을 벌인다.

20일부터 나흘간 충남 태안군 솔라고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KPGA 코리아투어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은 국내 최초의 프로암 정규대회다.

이 대회는 코리아투어 선수들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유명 인사가 팀을 이뤄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명 인사들은 3, 4라운드에 출전할 예정이며 박찬호와 이승엽 외에 우지원(농구), 여흥철(체조) 등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그린 위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재용, 이정진, 김성수, 류시원, 오지호 등 유명 연예인들도 참가한다.

1, 2라운드는 기존 대회와 동일하게 KPGA 코리아투어 선수 132명이 경기에 나서고 상위 60명이 3, 4라운드에 진출해 유명 인사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순위를 정한다.

최종 우승자는 프로 선수의 성적으로 결정되며 선수와 유명 인사의 팀 경기는 '팀 베스트 볼 방식'으로 3, 4라운드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팀의 이름으로 팀 우승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